

신안 비금·도초 시금치 절반 말라 죽었다

<섬초>

젖은 비·높은 기온에 우박까지 덮쳐 544ha 습해

공급 줄어 가격도 작년 배 이상 올라...郡 피해조사

신안군 비금·도초면 시금치 재배농가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달 젖은 비와 고온으로 인해 시금치잎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습해(濕害) 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안 섬초’로 불리는 신안 비금·도초산 시금치는 도시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은 효자 농산물이자 명품 시금치이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시금치 피해지역은 비금면 332ha, 도초면 212ha 등 총 544ha로 전체 재배면적의 전체 재배면적(1200ha)의 50%에 달한다. 반면 농가에서는 70%로 추정하고 있다.

군은 시금치 습해 원인에 대해 지난달

젖은 강우와 높은 기온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월부터 2~3일 간격으로 비가 내리고, 기온도 평년보다 0.6~1.3도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월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11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처럼 많은 강수량은 처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달 4~5일께 공알만 한 우박이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져 결정적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재배단지에는 시금치가 잔뿌리가 없어 누렇게 시들어 가고 있다. 농가들은 그나마 살아 있는 시금치도 병들기 전 출하를 위해 서두르고 있다. 시금치 공급물량이 줄며 가격도 경총 뛰었다. 지난해 상



습해를 입어 누렇게 말라가는 시금치.

품 10kg들이 한 박스당 2만원대 하던 것이 현재 5만원 대까지 올랐지만 이마저도 시금치가 없어 공급이 중단될 형편이다.

시금치 재배농가 최병호(비금면)씨는 “5000평 시금치밭 가운데 70%가량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월동 준비와 자녀의 뒷바라지도 문제이지만 당장 대출이자도 못 낼 형편이다. 우선 대출이자 감면과 앞

으로 이를 위한 조례제정 등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안군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피해원인 조사와 함께 ‘농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피해지역 시금치 농업인들에게 배수구 정비 등 서둘러 물 빠짐을 좋게 하고, 생육부진 포장 등에는 4중 복합비료와 요소 2%를 엽면(葉面) 시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 비금·도초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금치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비금면 843가구·도초면 572가구가 1200여ha에서 ‘신안 섬초’를 재배해 연간 20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1lee@

무안군 로컬푸드 활성화로 FTA 파고 넘는다

저온저장고 등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 구축 지원

무안군이 ‘로컬푸드’(Local Food=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 활성화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무안군은 우리나라 농업에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영세농가의 소득증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군은 내년에 2억2000만원을 들여 무안군 로컬푸드 출하자협의회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를 비롯해 비가림 하우스, 맞춤형 농기계 등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과 로컬푸드 정착 및 생산농가 역량 강화를 위해 소포장재와 교육·홍보비를 지원한다.

앞서 군은 지난해 ‘무안군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로컬푸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최근까지 로컬푸드 생산농가에 국내 선진농업 연수 시행과 소포장재 및 교육·홍보비를 지원하고, 각종 농림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철주 군수는 “로컬푸드 활성화는 FTA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의 완충 역할과 동시에 새로운 유통대안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영광군수 관사 내달부터 게스트 하우스 활용

영광군수 관사가 내달 1월부터 ‘게스트 하우스’(귀빈용 숙소)로 활용된다.

그동안 군은 군수관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관사 활용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귀빈(국외 및 국내 방문자) 숙소 이용, 마더센터 및 여성폭력피해자 쉼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군은 군정 조정위원회를 열고 유지관리

비는 최소화하고, 이용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군수관사 활용 방안으로 ‘게스트 하우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자매결연 확대로 교류행사가 증가하고, 각종 축제시 방문객 및 향우 고향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며 ““게스트 하우스’ 관리규정 제정과 관사 내부를 보수해 내달 1월부터 향우 및 국내외 방문단 숙소로 무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함평 음식 테마거리 메뉴 시연

함평지역 주민들이 지난 15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비빔밥 음식 테마거리 메뉴개발 및 상차림 시연’ 행사장을 찾아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시연은 ‘함평천지 한우 비빔밥거리’를 색다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함평군 제공>

함평지역 주민들이 지난 15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우비빔밥 음식 테마거리 메뉴개발 및 상차림 시연’ 행사장을 찾아 메뉴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시연은 ‘함평천지 한우 비빔밥거리’를 색다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

자연체험시설 조성·농산물 직거래 등 공동 추진

함평군과 서울시가 최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가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 안병호 함평군수, 정수길 함평군의회의장과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과 안 군수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공유·활용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연체험시설 조성 ▲함평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 ▲어린이 및 청소년 역사·문화·농촌 체험 활성화 ▲귀농·귀촌 희망자 정착 지원 ▲기타 상호협력의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 도시는 이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별 별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안병호 군수는 “함평과 서울시가 중추적인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함평은 자연과 생태가 아름답고 뛰어난 인물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서울과 함평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함평 새농민회 관내 어르신들 보행보조차 40대 전달

전국 새농민회

함평군회(회장 김

영철)는 최근 어

르신 보행보조차

40대(400만원 상

당)를 함평 관내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오관수 전국새농

민회 전남도부회장

과 한수길 농업 함평

군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지역 농·축협

조합장, 함평군 새

농민회원이 참석

했다.

어르신 보행보조

차는 전국 새농민

회 함평군회와 전

남도 연합회, 농업

중앙회가 성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함평관내 농·축

협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농촌 어르

신들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전남 새

농민회



는 21개 시·군회 주관으로 매월 순번제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철 회장은 “전남 새농민회는 매년 나눔문화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농업을 선도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영광군 ‘전남도 식품유통 업무평가’ 2년연속 우수상

영광군이 최근 2014년도 전남도 식품유통업무 추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산물 판로확보와 쌀 마케팅, 고부가 식품산업육성 등 5개 분야 32개 항목에 대해 실적위주의 엄격한 평가를 거

쳐 실시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가공과 홍보·마케팅분야를 적극 육성해 지역경제 및 농가소득 증대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NAVER *전남영광* 단비플라워 농촌진흥청

단비플라워

축화화원3단

근조화원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건물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23.5억 (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 나주혁신도시 분양상가 투자상담환영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대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대21억(사옥,병원,오피스텔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 해남군 대흥사부근 한옥민박집 매3.8억
- 남평읍 대교리 토지임대 3.3㎡당 2,500원, 6,663㎡ (조청가, 아적장 주가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매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
답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중개 수수료 없음)**

주인직매 010-8676-1900